

# 인사말 Greeting

서울시는 시민의 보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도시공간에 예술적인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자 2016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 서울의 공공 공간에서 예술작품과 예술행위,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미술 사업으로, 도시 서울을 예술적 활기로 가득 찬 생동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자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의 주제는 "기념조형물과 동시대 공공미술"입니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공공미술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념조형물과 동시대 공공미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미술로서의 기념조형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여 시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오시는 길 Map



### 대중교통

#### 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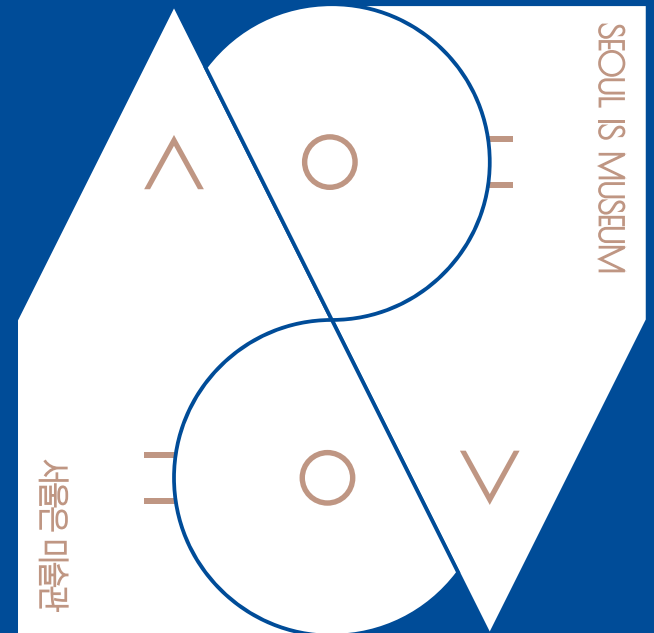
-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470m
-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600m
-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720m
- 1호선 시청역 1, 2, 3번 출구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850m
- 2호선 시청역 12번출구 서울역사박물관 방향 980m

#### 버스 (서울역사박물관 하차)

- 간선 :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600, 601, 602, 702A, 702B, 704, 705, 710, 720, 721
- 지선 : 7019
- 일반 : 1002

# 제3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THE 3RD SEOUL IS MUSEUM INTERNATIONAL CONFERENCE

기념 조형물과 동시대 공공미술 : 기념하지 않을 자유를 향하여  
MONUMENTS AND PUBLIC ART NOW :  
ONWARDS TO THE FREEDOM OF NON-COMMEMORATION



2018. 9. 13. THU 10:00 ~ 18:00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문의 : 070.7778.0600 | 사전등록 : seoulurbanart.com



장소협찬



TIME	PROGRAM
10:00 - 10:20	<b>개회식</b> 개회사 : 서정협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축사 : 안규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10:20 - 10:30	장내정리
10:30 - 11:50	<b>세션1. 기념비의 세기: 무엇을 기념하며 어떻게 기념해 왔는가?</b> 1. [기조연설] 난처한 과거를 기념하며: 재현의 문제점과 가능성 - 제프리 K. 올릭 / 버지니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기조연설] 예술의 '사회적 전환' 이후 공공미술 - 성완경 /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질의응답) 3. 정치적 기억의 장치: 애국선열기념조상위원회의 동상 - 조은정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11:50 - 13:30	중식
13:30 - 14:50	<b>세션2. 동시대 새로운 기념비로서의 반 기념비, 비 기념비</b> 4. 장소와 시간 - 존 키에퍼 / 독립문화정책 고문, 시추에이션스(Situations) 의장 5. 이데올로기 강화 기제로서의 러시아 기념비의 어제와 오늘 - 이훈석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6. 한국 반 기념비의 문화적 전복성과 정치적 가능성 - 전진성 /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질의응답)
14:50 - 15:10	휴식
15:10 - 16:20	<b>세션3. 기념 - 조형의 지형도: 예술적 실천 과정 속에서</b> 7. 남북한 동상과 기념비의 풍경: 작가적 기록과 실천들 (렉처 퍼포먼스) - ① 최원준 / 시각예술가 ② 김익현 / 사진작가 - ③ 이택광 /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8. 기억과 애도로서의 미술 - 박영택 / 미술평론가,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 (질의응답)
16:20 - 16:40	휴식
16:40 - 17:50	종합토론 : 전체 참여연사 주제토론
17:50 - 18:00	폐회

Session 1. — 기념비의 세기: 무엇을 기념하며 어떻게 기념해 왔는가?



**제프리 K. 올릭 JEFFREY K. OLICK** [기조연설]  
버지니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프리 K. 올릭은 집단기억과 기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독일 과거사 극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현재 버지니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행맨의 집: 독일 패배 연합국 In the House of the Hangman: The Agonies of German Defeat', '기억의 지도 The Politics of Regret' 등을 저술했다.



**성완경 SUNG WAN KYUNG** [기조연설]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성완경은 1980년대 민중 미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며 미술을 실제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1980년대 민중 미술을 주도했던 미술동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멤버로,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파리비엔날레 국제운영위원회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조은정 CHO EUN JUNG**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조은정은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사 속에서의 권력 구조와 미술의 관계를 규명하며 역사적인 장소와 미술관, 미술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국제미디어아트시티, 창원조각비엔날레 등의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조각평론상', '석남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동상: 한국 근현대 인제 조각의 존재방식', '한국 조각미의 발견' 등이 있다.

Session 2. — 동시대 새로운 기념비로서의 반 기념비, 비 기념비



**존 키에퍼 JOHN KIEFFER**  
독립문화정책 고문, 시추에이션스(Situations) 의장

존 키에퍼는 지역사회와 문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독립 문화 정책가로 현재 영국 시추에이션스(Situations UK)의 의장, 아트어드민(Artsadmin) 및 BBC 공연예술기금 이사에 재직중이다. 또한 큐레이터, 학자, 예술가들로 구성된 어소시에이트(Associates)의 멤버이며, 존3셸라(John3Shelagh)의 공동디렉터로 활동중이다.



**이훈석 LEE HOON SUK**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이훈석은 20세기 중반 소련의 비공식 미술과 문화적 트라우마, 실존주의에 관하여 연구하는 미술사학자이다. 미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철학적 기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가지며 연구한다. 또한 아트인컬처의 러시아 통신원, 2012부산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모스크바비엔날레재단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강원국제비엔날레2018 큐레이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진성 CHUN JIN SUNG**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진성은 역사적 시간성, 기억과 미적 재현, 트라우마와 인권, 도시공간의 시각적 구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역사를 연구한다. 문제의식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미적 체험의 양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론적,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저서로는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박물관의 탄생' 등이 있다.

Session 3. — 기념 - 조형의 지형도: 예술적 실천 과정 속에서



**이택광 LEE TAEK GWANG**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

이택광은 한국의 숨겨진 문화구조와 사회적 문제, 모순들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문화비평가다. 그는 영국 유학 시절 <교수신문> 통신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학술위원으로 저술활동을 하고있다. 저서로는 '이것이 문화비평이다.', '무엇이 정의인가?', '인상파, 파리를 그리다', 등이 있다.



**최원준 CHE ONE JOON**  
시각예술가, 라익스아카데미 펠로우십 아티스트

최원준은 북한의 기념비 미술이 아프리카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각예술가다.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 플라토 미술관, 파리의 팔레 드 도쿄, 케브랑리 박물관,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한국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그의 대표 프로젝트로는 북한의 건축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 아프리카 여러나라를 다니며 만든 <만수대 창작소 Mansudae Master Class>가 있다.



**김익현 GIM IK HYUN**  
사진작가

김익현은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 선별하여 구조화하는 사진작가다. 2016년까지 사진가 홍진원과 함께 공간 자문여기를 공동 운영한 바 있으며,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A Snowflake, 2017> 등에 참여했으며, 2017년 개인전 <Looming Shade>를 가졌다.



**박영택 PARK YOUNG TAIK**  
미술평론가,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

박영택은 그림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미술평론가이자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이다. 2010년부터 경향신문에 '박영택의 미술전시장 가는 길'을 격주로 연재하며 미술평론가 활동을 하였으며, 더불어 큐레이터로서 제2회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2002 커미셔너, 2010아시아프 총감독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좌장 MODERATOR



**기혜경 KI HEY KYUNG**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2002-2015)
- 국립현대미술관 <마리노 마리니 展>, <신호탄> 등 기획
- 저서 '이미지시대의 매체 VS 미디어'



**조은정 CHO EUN JUNG**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 인물미술사학회 회장 역임
- 소미미술관, 양평국립미술관 운영위원
- '석남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2013), '조각평론상'(1955) 수상